

의령저수지서 수질통합방제 합동훈련 진행

윤 최판균기자 | 승인 2026.06.30 12:30

유류 유출·녹조 상황 가정, 실전처럼 대응

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의령저수지에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'2026년 경남 내륙권역 수질통합방제 합동 훈련'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훈련은 농업용수 공급의 요충지인 저수지에서 유류 유출과 대규모 녹조 발생을 가정해 진행됐다. 특히 가뭄과 폭염 등 기후변화로 녹조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, 실전과 닮은 긴장감 속에서 방제 작업이 전개됐다.

훈련에는 경남 내륙권역 통합방제단 소속 의령지사, 진주산청지사, 거창함양지사, 합천지사 등 방제요원들이 참여했다. 사고 접수 직후 상황 전파, 오일펜스 설치, 유흡착재 활용 유류 제거, 녹조 제거제 살포 등 단계별 조치 내용과 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숙지했다.

또한, 인근 지사 간 재난 자재 지원과 인력 동원 등 지사 간 협력 네트워크를 점검하며, 대규모 수질 오염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.

이재경 지사장은 "안전하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공사의 기본 책무"라며 "정기적 합동 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고,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 수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[전국매일신문] 최판균기자

chpag@jeonmae.co.kr

저작권자© 전국매일신문-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'한눈에'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최판균기자